2006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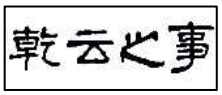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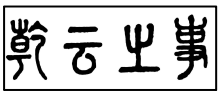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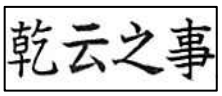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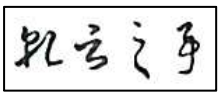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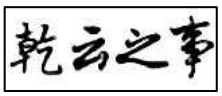
성명		수험번호						1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 )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2. (물음) 여학생이 마지막 말에 덧붙여 말하기에 적절한 것은? [1점]

① 내 코가 석자라니까!
② 우물에서 숭늉 찾아라, 얘!
③ 다 된 죽에 코 빠뜨리겠다, 얘!
④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던데.
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더라.

3. (물음)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① 삼의 재배 지역
② 고려인삼의 재배 기간
③ 고려인삼과 중국 삼의 가격
④ 고려인삼과 외국 삼의 모양
⑤ 고려인삼에 포함된 활성 성분의 종류

4. (물음) 이 수업에서 설명한 원리가 작용하여 이루어진 단어는?

① 저녁에 집에 가보니 동생이 울고불고 야단이 났다.
② 어제 본 모의고사 문제는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었다.
③ 방 안에서는 아기가 생긋방긋 웃으며 혼자서 잘 놀고 있었다.
④ 셋방살이로 아등바등 살아오다가 이제 겨우 집 한 채를 장만했다.
⑤ 양지바른 곳에서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이 토론의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국민 다수가 사형 제도 유지에 찬성하는가?
②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③ 우리나라에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④ 외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가?
⑤ 종신형 제도가 사형 제도보다 흉악한 범죄를 막는 데 효과적인가?

6. (물음) 여성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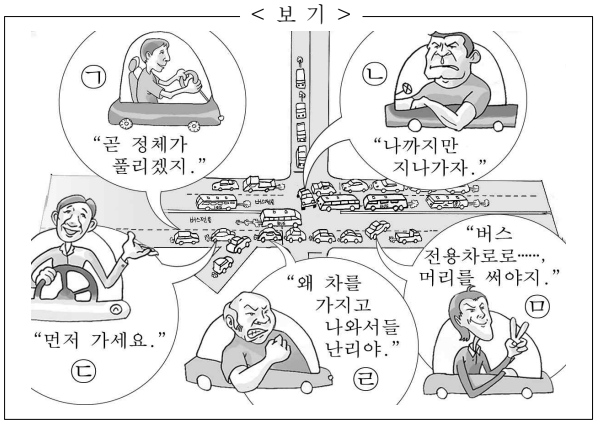
①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② 질문 형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주관적인 의견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⑤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언 어 영 역

듣기·말하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보기>를 활용하여 '현대 도시인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① ㉠: 조급한 마음보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사는 지혜이다.
② ㉡: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③ ㉢: 남에 대한 배려는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이다.
④ ㉣: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⑤ ㉤: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발상을 새롭게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8.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나라 가구당 서적·인쇄물 구입에 지출한 돈이 월평균 ㉠1만405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월 평균 3권 이상 읽는 인구 비율은 우리가 14.5%인 데 비해 일본은 17.7%에 달한다.

이처럼 ㉡적은 독서율로는 21세기 문화 전쟁의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 문화 전쟁의 무기는 정보와 지식이고, 책이야말로 검증된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책을 읽지 않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정부는 독서 진흥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공공 도서관을 ㉣늘이고 양서(良書) 출판도 지원해야 한다. 학교의 ㉤독서 환경과 독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신문이든 책이든 읽는 사람[Reader]이 지도자[Leader]가 된다.

① ㉠: 수(數)는 '만(萬)' 단위로 띄어 써야 하므로 '1만 405원'으로 고친다.
② ㉡: '비율'은 수치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므로 '낮은'으로 고친다.
③ ㉢: 앞 문장과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친다.
④ ㉣: 수나 양을 늘게 한다는 뜻인 '늘리고'로 고친다.
⑤ ㉤: 서술어와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독서 환경을 개선하고'로 고친다.

9. <보기>를 읽은 후의 감상 중, 조건에 맞게 표현한 것은? [1점]

< 보 기 >

토끼와 거북이가 또다시 경주를 하였다. 토끼는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앞서자,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잤다. 한참 후, 거북이는 토끼가 자고 있는 나무 옆을 지나게 되었다. 세상모르고 자고 있는 토끼를 본 거북이는 이번에는 토끼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자못 마음이 들떴다. '내가 드디어 토끼를 이기다니!'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에 신바람이 나 더욱 열심히 기어갔다. 하지만, 곧 뒤통수가 근질거렸다. 거북이는 '치사하게 이기느니, 당당하게 지자.'며 오던 길을 되돌아가 토끼를 깨웠다. 눈을 뜬 토끼는 깜짝 놀라 서둘러 몇 걸음 뛰었다. 그러다가 거북이가 자신을 깨웠다는 걸 알고, 거북이에게 말했다. "거북아, 고마워. 난 내 재주만 믿고 늘 자만했었는데 넌 항상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했으니, 네가 진정한 승리자야. 그러니 네가 먼저 들어가." 그러자, 거북이는 "아니야, 네가 먼저 들어가. 능력이 뛰어난 자가 이기는 건 당연한 거야." 하며 양보했다. 결국 둘은 함께 들어가기로 하고, 어깨동무를 한 채 나란히 결승점을 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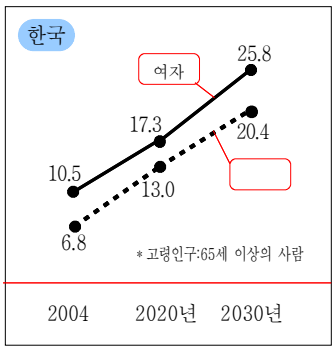
< 조 건 >

○ <보기>의 주제를 반영할 것
○ 의문문의 형식을 포함시킬 것
○ 비유적인 표현을 쓸 것

① 새롬: 토끼와 거북이의 행복한 경주. 진정한 승리란 우리 모두가 이기는 것이 아닐까?
② 소라: 누구보다 성실했던 거북이, 드디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의 드라마 같은 승리에 박수를 보낸다.
③ 우람: 이야기를 읽고서야 깨달았다. 용서야말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라는 것을.
④ 시내: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다가온 이야기. 우리도 그들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는 없을까?
⑤ 한솔: 거북이의 말을 들은 토끼의 마음은 어땠을까? 거북이의 마음을 받아들인 토끼,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패배자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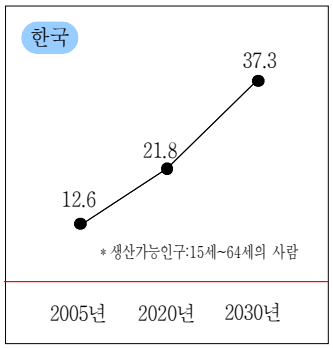
10.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통계청

<자료2>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단위:%)



자료:보건사회연구원

<자료3>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단위:년) 소요연수

고령인구비율	7% ( )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한 국	2000년	19	2019년	7	2026년
일 본	1970년	24	1994년	12	2006년
영 국	1929년	47	1976년	44	2020년
미 국	1942년	72	2014년	16	2030년
프랑스	1864년	115	1979년	40	2019년

자료:통계청

① <자료1>을 활용하여 한국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음을 알려준다.
② <자료2>를 활용하여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점점 늘어날 것을 지적한다.
③ <자료3>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④ <자료1>과 <자료2>를 활용하여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이 인구 고령화를 앞당기는 원인임을 보여준다.
⑤ <자료1>~<자료3>을 종합하여 인구 고령화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11. <보기>와 같이 '한류(韓流)의 장기적 육성 방안'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 수정 및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Ⅰ.
1. 각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폭
2. 한류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

Ⅱ. 본론
1. 한류 육성의 의의
가. 아시아 속의 한국 위상 제고
나. 경제적인 파급 효과
2. 현 상황에서의 한류의 문제점
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부족
나. 한 분야에만 열풍
다. 상업적 목적에 치중
3. 한류의 지원 및 육성 방안
가. 기업을 중심으로 한류 지원 방안 수립
나.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
다. [ ]

Ⅲ. 결론
: 한류에 대한 전망과 제언

㉠ :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베트남 등의 아시아 각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사례로 한다.

㉡ :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으로 많은 문화가 수출되고 있음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 드라마 위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음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 : 'Ⅱ-2-가'를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수립'으로 수정한다.

㉤ : 'Ⅱ-2-다'를 고려하여 '진정한 의미의 문화 교류라는 측면에서 접근'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을 형태소로 바르게 나눈 것은? [1점]

< 보 기 >

형태소란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더 쪼개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문법 단위라 할 수 있다. 가령, '나는'에서 '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하나의 형태소가 되고, '-는'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는 않지만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다음 예문을 형태소로 나누어 보자.

㉠ 나는솔잎을씹어보았다.

① 나/는/솔/잎/을/씹/어/보/았/다
② 나/는/솔/잎/을/씹/어/보/았다
③ 나/는/솔잎/을/씹어/보/았다
④ 나/는/솔잎/을/씹어/보았/다

⑤ 나/는/솔잎을/씹어/보았다 |

13. 학급 앨범을 CD로 제작하고자 한다. 제작 계획서 내용 중, <보기>의 제작 회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목** : 급우들의 꿈과 우정이 드러나도록 한다.
○ **대 상** : ○○고등학교 1학년 1반
○ **제작 의도** : 일 년 동안 급우들의 다양한 활동 내용을 담아 생생한 기록물이 되도록 한다.
○ **구성 방식** : 학급 전체 활동과 개인 활동을 조화시켜 다채롭게 구성한다.
○ **전달 방식** : 정보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한다.

앨범 제작 계획서

제목	내일로, 우리 손 맞잡고!	…… ①
제작 의도	꿈을 키우고 우정을 쌓았던 활동들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1년을 추억하고 기념한다.	
구성	○ 단체 활동은 생동감이 잘 드러나도록 현장 위주로, 개인 활동은 당사자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밀착 취재 위주로 촬영하여 구성한다.	…… ②
	○ 돌발 영상, 스냅 사진 등을 중간중간에 삽입하여 흥미롭게 구성한다.	…… ③
전달 방식	○ 동영상 자료, 사진 자료, 인터뷰, 글 모음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편집한다.	…… ④
	○ 교장 선생님의 말씀 등을 내레이터의 해설을 통해 삶의 교훈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 ⑤

14. <보기>는 문법 강의의 일부이다. 이와 같은 경우의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 기 >

명사에 '-다'를 결합하면 명사일 때의 구체적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비다'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누비'는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펴서 넣고, 줄이 지게 일정한 간격으로 바느질을 하여 한데 붙인 두터운 천'을 의미하는 명사인데, 여기에 '-다'를 붙이면, '이불을 누비다.'에서와 같이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펴서 넣고 줄이 지게 일정한 간격으로 바느질을 하여 한데 붙이다.'의 뜻인, 동사 '누비다'가 되는 것이죠.

<명사>		<동사>
① 살 : 사람이나 동물의 뼈를 싸고 있는 부분	→	그는 아직도 그 도시에 살고 있다.
② 뭉치 : 한데 뭉치거나 말린 덩이	→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려고 눈을 뭉치고 있었다.
③ 빗 : 머리털을 빗을 때 쓰는 도구	→	색시는 머리를 곱게 빗고 단장을 하고 앉았다.
④ 신 : 땅을 딛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	→	그녀는 발목이 시려 두꺼운 버선을 신고 있었다.
⑤ 품 : 두 팔을 벌려서 안을 때의 가슴	→	그녀는 아기를 가슴에 품고 종종걸음치고 있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싱싱 청과물에서는 구정 대목이 다가오자 울긋불긋한 꽃종이로 포장한 사과 상자, 귤, 배, 진영 단감, 딸기 들을 가게 안팎으로 가득 벌여 놓기 시작하였다. 신정 연휴가 사흘이나 된다 하여도 음력 설만큼 돈이 풀리려면 어림도 없다. 우리 정육점도 연일 비린내를 풍기며 고깃근을 쟁여 놓고 대목 장사를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에도 울긋불긋 과일전이 흐드러졌다. 김 반장이 차를 빌려 서울까지 원정 나가서 도매로 들여온 물건이었다. 가격은 싱싱 청과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졌다. 싱싱 쪽에서 사과 상품 한 상자를 15,000원에 판다면 그들은 14,000원에 금을 매겼다. 깎으려고 드는 손님들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한껏 금을 내려 주었다. 구정 선물용으로 대개 상자째 팔려 나가는 때였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싱싱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손님이 있으면 김 반장은 어디서 구해 왔는지 삑삑거리는 핸드 마이크를 쳐들고 훼방을 놓았다.

“과일 바겐세일입니다. 조생 귤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금방 올라온 맛좋은 부사 사과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자, 과일 바겐세일!”

어떤 때에는 김포 슈퍼를 선전해 주기도 하였다.

“과일 세일합니다. 사과, 배, 귤 모두 세일합니다. 저 쪽 김포 슈퍼로 가시든가 여기로 오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몽땅 세일합니다요.”

싱싱 청과물 사내가 김 반장한테 쫓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싸움은 초반부터 싱싱 청과물 사내가 불리한 쪽에 있었다. 생각 없이 대뜸 내뱉은 첫말이 당장 김 반장의 공격망에 걸려 버린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 하여 만만히 여기고 다짜고짜 말을 놓은 게 실수였다. 싱싱 청과물 사내가 말꼬리를 붙잡혀서 정작 장사를 훼방한 것에 대해서는 따질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경호 아버지가 싸움에 끼어들었다. 이 때다 싶었던지, 몰리고 있던 싱싱 청과물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 말야, 왜 어깃장을 놓아? 가격이야 뻔한데 본전치기로 넘기면서 남의 장사 망쳐 놓는 속셈이 대관절 무엇이야? 엉! 왜 못살게들 굴어?”

경호 아버지도 어름하게 물러서지는 않았다.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죄요? 원 별소릴 다 듣겠네.”

얼굴이 벌개진 싱싱 사내는 공연스레 목청만 돋운다.

“이 사람들, 이제 보니 심보가 새까맣군그래.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죄냐구? 말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냐? 날 죽여 보겠다는 심보는 대체 뭐야!”

그러면 김 반장이 또 씩씩거리며 대들었다.

“이게 좁쌀밥만 먹고 살았나? 말마다 영 기분 나쁘게시리 반말로만 내뱉는군. 단단히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작자라니까.”

마침내 싱싱 청과물 사내가 죽기살기로 김 반장의 멱살을 잡고 바둥거리기 시작했다. 몸피가 유난히 왜소하여 애초 김 반장의 상대가 되지도 못하면서 기를 쓰고 덤벼드는 그를 김 반장은 여유있게 메다꽂았다. 이 못된 놈이 사람 친다고 악을 쓰면서 덤벼드는 그를 향해 김 반장은 알게 모르게 주먹 솜씨를 발휘하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생전 보지도 못한 놈이 남의 장사 망치려고 덤벼든 것을 생각하면 내 속이 터진다구.”

김 반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

“와 이라노? 이게 무슨 짓들이가? 한 동네 삼시로 서로 웬 주먹질이란 말이가? 보소, 아저씨가 참으소. 맞는 사람만 손해라카이. 아이구마, 김 반장아. 니가 깡패로 나섰노? 이러는 기 아니다. 아무리 억울헌 일이 있다 캐도 이러는 기 아니다. 이 손 치아라! 내 말 안 들으라면 인자부터 니랑 내랑 아는 체도 말자고마. 이 손 치아라!”

원미 지물포 주씨가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지물포 주인 주씨가 뜯어말리는 그 사이에도 김 반장은 연신 싱싱 청과물 사내의 옆구리를 향해 헛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싸움 구경에 나섰던 사람들은 그 날의 사건을 두고두고 입에 올렸다. 다음다음 날, 싱싱 청과물 사내가 입술을 깨물며 리어카 행상으로 과일 처분에 나선 것을 보고는 모두들 김 반장의 잔인함에 몸을 떨었다. 구정 대목을 보려고 무리하면서까지 들여놓은 과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없기는 하였다.

“지독해. 김 반장네 가게에선 앞으로 두부 한 모도 사지 않을 거야.”

시내 엄마는 질렸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제 네 살짜리 사내 하나를 두고 있는 그녀는 얼핏 보기엔 64번지 새색시보다 훨씬 앳되어 보였다. 써니 전자를 꾸려 나가는 그들 부부의 사는 모습도 지극히 낭만적이어서 깊은 밤 문 닫힌 그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애수어린 음악 소리만 들어도 그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터였다.

“경호 아버지도 다시 봐야겠어. 어쩌면 그렇게 몸을 사릴까? 약아빠졌어. 난 김 반장보다 경호 아버지가 더 얄밉더라.”

64번지 새댁이 분개하였지만, 여자들은 김 반장 쪽이 아무래도 나빴다는 쪽으로 의견들을 모았다. 그렇게까지 독한 줄은 몰랐었는데, 정말이지 사람이란 두고두고 겪어 보아야만 속을 안다고 입을 삐쭉였다.

원래가 목이 좋지 않아 어느 장사든 길게 가 본 적이 없는 싱싱 청과물은 문을 연 지 한 달만에 셔터를 내리고야 말았다. 만두집, 돼지갈비 전문, 오락실 따위의 장사를 벌였던 이전의 주인들도 두세 달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다만 몇 푼이라도 가게 치장에 돈이 든 것이 아니고, 미처 팔지 못한 과일이나 부식은 식구들이 먹어치우면 될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여자들은 수군거렸다. 동맹자들이 결국은 목적을 달성한 사실에 대해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면서 혹은 언짢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특히 시내 엄마가 싱싱 청과물의 폐업을 가장 가슴아파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였을라구. 이 동네가 어디 장사해서 돈 벌 곳이 되나? 그깟것 같이 좀 먹고 살면 어때서, 너무 잔인해."

"문 닫은 걸 보니 안되긴 좀 안됐어. 그래도 어쩌겠나? 다들 먹고 살아 보려고 아웅다웅하는 것이니……."

원래 대범한 편인 지물포 여자가 다소나마 그들을 감싸 주었다.

–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

1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공간적 배경이 다양하게 드러나 있다.
② 시점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③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물들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④ 과거의 삶에 대한 회상과 현재의 삶의 모습이 교차되고 있다.
⑤ 반어적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비극적 운명을 드러내고 있다.

16. 위 글에 나타난 인물을 중심으로 갈등의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1점]

	인물	갈등의 유형	갈등의 원인
①	경호 아버지	내적 갈등	자신과 김 반장의 방해로 싱싱 청과물이 문을 닫음.
②	김 반장	외적 갈등	싱싱 청과물의 개업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음.
③	싱싱 청과물 사내	내적 갈등	김 반장과 경호 아버지의 방해로 과일을 팔지 못함.
④	64번지 새댁	외적 갈등	지물포 여자가 김 반장을 감싸 줌.
⑤	지물포 주씨	내적 갈등	김 반장이 너무 잔인하게 싱싱 청과물 사내를 괴롭힘.

17. 위 글에서 '김 반장'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사건의 전개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있다.
③ 냉정한 편이지만 때로는 동정하기도 한다.
④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판적이다.

18.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서민들의 삶에 대한 작가의 깊은 관심이 느껴져.
② 작가는 더불어 살아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③ 일상적 대화의 말투와 사투리의 사용으로 현실감이 잘 드러나 있어.
④ 한 개인이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해야 하는 현실도 문제지만, 폭력에 무감각한 이웃들의 태도가 더 문제야.
⑤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거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

1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서웠다 ② 산뜻했다 ③ 시원했다
④ 정확했다 ⑤ 서늘했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의 풍속화를 인물화나 산수화에 비해 그 가치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격식을 따지는 사대부들은 품격을 중시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천하게 여겼다. 우리는 오랜 유교적 전통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대부들의 이 같은 가치관을 받아들여 풍속화의 가치를 오랫동안 낮게 평가해 온 것은 아닐까?

풍속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표방한 실학사상(實學思想)이 대두된 조선 후기이다. 이 시기가 되면 서민들의 생활은 점차 나아지고, 서민들 중에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나타난다. 반면, [ⓐ]. 이 같은 사회의 변화는 그림에도 영향을 미쳐, 사대부들의 취향에서 벗어나 생활을 기록하는 그림, 즉 풍속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혜원(蕙園) ㉠ 신윤복(申潤福)과 단원(檀園) ㉡ 김홍도(金弘道)의 그림도 이때의 것이다. 신윤복과 김홍도는 같은 시대의 화가로서 도화서(圖畵署)의 화원을 지내면서 사대부 취향의 그림을 그렸고, 신윤복은 첨정(僉正), 김홍도는 현감(縣監)의 벼슬까지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의 화가와는 달리 서민 사회나 상류 사회의 희로애락을 이전 시기보다 자유롭게 그렸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 풍물을 그리는 눈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신윤복은 세상살이의 모습을 그리되 당시에 금기시되었던 기녀·무녀·주점·연회 등에서 보이는 여성의 선정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상류 사회에서 연회를 벌여 즐기는 장면을 관찰자의 자세로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펼쳐 그렸다. 반면에 김홍도는 보다 서민적인 일상사의 주변 현실에 가까이 다가서서 함께 즐기는 자세로 그렸다. 씨름, 서당, 춤추는 어린이, 행상, 대장간 등 동작 있는 현실의 풍물을 그리되,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에 해학이 넘쳐 흐르게 그렸다. 신윤복이 그리는 삶의 무대가 남의 시선이 닿지 않는 기방이나 주방의 내실, 뒤뜰의 연당, 돌담, 깊은 숲 속을 기웃거리며 월하(月下)의 정경을 무대로 삼았다면, 김홍도는 우리들이 지나치며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열려진 삶의 현장을 해학적으로 그려내었다.

우리는 신윤복, 김홍도의 그림으로 대표되는 ㉢ 풍속화를 통해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사상적 측면에서 풍속화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술이다. 그 전까지의 산수화는 사람을 그리지 않거나 그리더라도 자연의 부속물로 표현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풍속화는 그림 밖에 있던 사람을 그림의 중심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인간 중심적 사고를 드러내는 중요한 양식이 되었다. 예술적 측면에서 풍속화는 조선 회화의 미적 영역을 확대했다는 가치를 지닌다. 사대부의 관념적 이상 세계를 그리는 것에 한정되었던 조선 회화는 풍속화에 와서 여러 계층의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을 담아냄으로써 폭과 깊이에서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풍속화는 당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다.

20. 위 글을 기사화하려고 할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풍속화의 감상 방법 － 소재를 중심으로
② 풍속화의 등장 배경 － 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③ 풍속화의 의의 － 신윤복, 김홍도를 중심으로
④ 풍속화의 변모 과정 － 시대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⑤ 풍속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화가의 기법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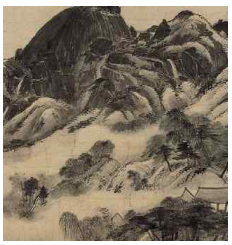
21. <보기>는 ㉠과 ㉡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 보 기 >

		당시의 사회상을 이전의 화가보다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ㄱ
차이점	신윤복	금기시되었던 대상을 그림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ㄴ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려는 의식이 표출되었다.	….ㄷ
	김홍도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주변의 풍물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	….ㄹ
		서민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객관적 태도로 그려내었다.	….ㅁ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2.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②

③

④

⑤

23.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왕의 권위는 점차 강화되었다
② 화가들의 지위는 상승하게 되었다
③ 상류 사회의 품격은 변함이 없었다
④ 그림의 예술적 가치는 높아지게 되었다
⑤ 사대부들의 권위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는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쓰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일기와 같다. 다만, 중요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이어지는지를 좀더 차분하고 치밀하게 적어 나갈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중요한지,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누가 따질까? 그것은 역사가가 하는 일이다. 역사가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서 앞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활과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울질해 본다. 이 과정에서 여기저기 널려 있는 사실들을 촘촘히 연결하고 다듬어서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는 보석 같은 가르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역사가의 몫이다.

역사가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의 눈으로 보고 내일을 생각하며 기록한다. 역사가는 탐구의 대상인 '옛날의 일' 못지않게 오늘날의 시각을 중요하게 여긴다. ㉠ 때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오늘날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후삼국 시대 후고구려(태봉)의 왕 궁예는 미륵보살 행세를 한 폭군으로 사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궁예에 대해 '미륵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상적인 군주를 꿈꾸다 반대파에 의해 쫓겨났다.', '궁예를 무찌른 왕건 세력에 의해 미치광이 취급을 당하였다.' 등의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다. 궁예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은 역사적 사건의 기록에 오늘날의 관점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역사적 사건이 개인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1997년에 일어난 IMF 사태를 떠올려 보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경제적 빈곤으로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몇 년 간의 노력 끝에 우리는 IMF 사태를 벗어났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벌어지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문제가 한 개인의 삶을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음을 확인했다. IMF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곧 역사적 사건이 된다. 이처럼 역사적 사건은 한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도 역사는 여전히 그 효용 가치를 지니는가? 역사는 왠지 정보화 사회에 맞지 않는다거나, 컴퓨터에 넣기에는 너무나 구닥다리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왜냐하면 역사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가령 자동차를 타고 낯선 곳을 여행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 보자. 한 사람은 지명만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지도와 나침반이 있다고 할 때, 누가 더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명확하다. 즉 역사는 과거를 통해 우리의 위치와 목표를 확인하게 하고 미래를 향한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이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하는 것과 그 목표를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올바른 목표가 없으면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성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삶의 과정에서 역사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안목을 길러주고 실천 의지를 강화시켜 준다. IMF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단지 부끄러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위기와 극복의 과정을 통해 IMF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삶은 분명 다를 것이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한 참고서이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삶을 원한다면 옛날로 돌아가 그들의 일기를 읽어볼 일이다.

24. 위 글의 중심 내용을 이끌어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올바른 역사가의 자세는 무엇인가?
② 역사학의 새로운 동향은 무엇인가?
③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역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⑤ 역사를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25.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서로 대립된 의견을 종합하여 절충안을 제시한다.
② 비유적인 어휘를 통해 중심 생각을 드러낸다.
③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논지를 확장한다.
④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⑤ 유사한 상황을 이용하여 내용을 전개한다.

26. 글쓴이의 궁극적인 견해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모든 역사는 한 개인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② 역사를 읽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
③ 훌륭한 역사가란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는 사람이다.
④ 역사는 우리 인간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는 영약이다.
⑤ 우리 각자의 조그만 행동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 역사이다.

27. ㉠의 예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역사적 사실	기존의 해석	새로운 해석
①	신라의 삼국 통일	신라의 삼국 통일은 한국 역사가 만들어낸 매우 값진 일이다.	다른 민족을 끌어 들여 같은 민족을 멸망시킨 것은 민족적 관점으로 볼 때 옳지 않다.
②	발해의 건국	대조영이 세운 발해는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나라이다.	발해는 고구려의 옛 땅에 세워졌고 지배층 대부분이 고구려 출신이었다.
③	묘청의 서경 천도 주장	풍수지리사상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을 선동하여 일으킨 사상적 반란이다.	타락하고 사대주의 사상에 빠진 귀족에 대한 저항 정신이다.
④	향약	각 고을의 선비들이 중심이 되어 유교적 풍속을 널리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양반들의 주도로 농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였다.
⑤	당파	소수 계급이 권력을 세습하여 국가의 풍속과 민족정신을 쇠퇴하게 만들었다.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으로 한국 민주정치의 뿌리가 되었다.

28－32】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언제부턴가 ㉡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

(다) ㉣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보라.

둘째딸 인혜는 그 소리를 대나무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라 했다.
언젠가 청진기를 대고 들었더니 정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우긴다.

나는 저 위 댓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대나무 텅 빈 속을 울려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설명했다.
그 뒤로 아이는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는다.

내가 대숲에 흐르는 수천 개의 작은 강물들을
아이에게서 빼앗아버렸다.
저 지하 깊은 곳에서 하늘 푸른 곳으로 다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세상에 다시없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헹구고
푸른 댓가지가 후려치는 회초리도 몇 대 아프게 맞으며.
－ 복효근, 「대숲에서 뉘우치다」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 (나)에는 화자의 일상적 경험이 드러나 있다.
② (가), (다)에는 순수를 동경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③ (나), (다)에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④ (가)~(다)에는 선명한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
⑤ (가)~(다)에는 슬픔의 정서와 그 원인이 드러나 있다.

29. (가)에 제시된 시의 상황을 이야기로 풀이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어린 나비는 누구에게서도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나비는 그저 바다를 빛깔만 보고 청(靑)무우밭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③ 삼월 어느 날, 나비는 바다 위를 날고 있었다.
④ 나비는 바다가 청(靑)무우밭이 아님을 알았고, 젖은 날개로 힘겹게 바다를 빠져나왔다.
⑤ 나비는 초생달을 바라보며 언젠가 꽃이 핀 청(靑)무우밭을 찾아가리라 굳은 결심을 한다.

30. (나)와 (다)에 쓰인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의 '밤'은 갈대가 흔들림의 이유를 깨달은 시간을 나타낸다.
② (나)의 '바람'은 갈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말한다.
③ (다)의 '물소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다)의 '실개천'은 아이들의 끊임없는 지적 탐구심을 가리킨다.
⑤ (다)의 '회초리'는 화자의 삶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31.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점]

< 보 기 >

시인은 사물을 인식하는 인간의 감각을 언어로 재현하여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시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특히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처럼 한 종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켜 나타낸 표현은 감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2. (다)를 읽은 주변 사람들의 감상을 물어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엄마 : 네가 산타가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았을 때, 선물은 아빠가 주는 거라고 해서 실망하던 모습에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구나.
② 아빠 : 지난 가을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푹 파묻혀 속세를 잊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나는구나.
③ 삼촌 :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고장 사람들이 내게 대나무가 좋다고 자랑해서, 나 역시 자주 대나무 숲에 갔던 기억이 나.
④ 친구 : 동생의 질문에 엉터리로 대답했다가 나중에 틀렸다는 것을 알고 민망했는데, 그 뒤로는 정확한 자료를 찾아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나.
⑤ 선배 : 산을 오를 때마다 꽃이나 나무 이름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덕분에 생물 과목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언어의 어휘 체계는 크게 고유어와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고유어는 그 언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어휘이며 외래어는 다른 언어에서 받아들인 어휘이다. 즉 외래어란 외국어 중에서 국어에 동화되어 국어로 사용되는 어휘들을 이른다. 외래어에 대한 이 풀이 속에는 외래어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외래어가 국어에 본래부터 있던 어휘가 아니라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 생활 속에 쓰이면서부터는 외국어가 아니라 국어에 속한다는 것이다.

외래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는가? 외래어는 외국 문화와의 접촉에서 생겨난다. 이 세상 어떤 민족도 주변의 다른 문화와 단절된 채 살아갈 수는 없으므로 모든 민족, 모든 문화는 많든 적든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다. 어떤 사회에 주변의 다른 문화로부터 새로운 문물이나 제도가 들어오면 그것을 지시하는 말이 필요하게 되는데, 대개는 새로운 문물과 함께 그것을 지시하는 말도 따라 들어오게 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라는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것을 지시하는 'Computer'라는 말도 함께 들어와서 우리말의 외래어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또한 컴퓨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메일(e-mail)', 'ⓑ인터넷(internet)' 같은 통신 관련 용어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외래어가 되었다.

외래어는 대개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말에 정착된다. 먼저 어떤 하나의 외국어가 우리말에 유입되면, 그것은 얼마 동안 발음이나 의미 모두 본래의 외국어 모습 그대로를 유지한 채 쓰이게 된다. 그러다가 점차 ㉠언중(言衆)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발음이나 형태 등이 국어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차용어라고 한다. 이후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으면, 본래 그것의 언어적 특징을 잃어버리고 우리말의 체계 속에 들어와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외래어를 귀화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말의 고유어와 다름없이 쓰이는 말들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외래어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차용어에 속하는 어휘들이며, 20세기 이후에 주로 영어 등 서양의 언어에서 들어온 말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귀화어에 속하는 어휘들은 우리말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사람들이 ㉡외래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대부분의 한자어를 들 수 있다. 국어 어휘의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한자어들도 엄밀히 따지면 먼 옛날 중국어로부터 들어온 외래어들이다. 또한, '붓(←중국어 筆)', 'ⓒ고무(←프랑스어 gomme)', '가방(←네덜란드어 kabas)', '빵(←포르투갈어 pão)' 등도 외래어라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실 이 어휘도 우리 고유어가 아닌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이다.

이론적으로는 외래어가 외국어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분이 쉽지 않다. 특정 단어가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에 대한 판단은 외국어에 대한 지식의 정도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또는 관심사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라디오', '커피', '피아노' 등의 어휘는 누구든지 외래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보스(boss)', 'ⓔ오너(owner)', '루머(rumor)', '비전(vision)' 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어휘들은 국어사전에 따라 표제어*로 실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 : 사전 등에 올리어 풀이를 단 말

33.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점]

① 외래어의 개념 ② 외래어의 특징
③ 외래어의 정착 과정 ④ 외래어의 수용 방안
⑤ 외래어의 구체적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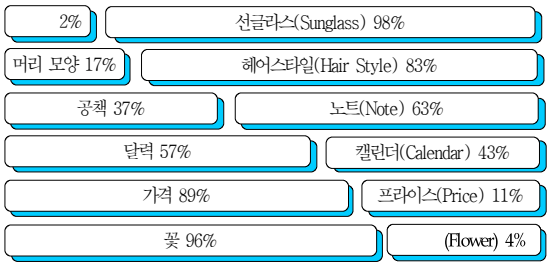
34.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래어는 본래 발음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② 유입된 시기가 오래된 외래어는 고유어로 착각할 수 있다.
③ 고유어만으로 이루어진 언어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④ 외래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⑤ 누구나 외래어라고 인정한 어휘만이 국어사전에 오를 수 있다.

35. ㉠과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국어학자 김○○은 어휘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플라워’나 ‘프라이스’ 같은 말들은 외래 문물과 함께 유입된 말이군.
② ‘선글라스’의 사용 빈도로 보아 ‘플라워’보다 국내에 먼저 유입됐겠군.
③ ‘선글라스’, ‘헤어스타일’ 같은 말들은 이젠 더 이상 외국어라 할 수 없겠군.
④ 학생들은 ‘노트’나 ‘캘린더’를 외국어라는 의식 없이 우리말처럼 사용하겠군.
⑤ ‘헤어스타일’이나 ‘캘린더’ 같은 말들은 우리말로 정착되는 데 어려움이 있겠군.

36. ⓐ~ⓔ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지위에 맞는 도덕적 의무감을 일컫는 말이다. 높든 낮든 사람들은 모두 지위를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지위'를 강조하고, 그것도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강조한다. 지도층은 '엘리트층'이라고도 하고 '상층'이라고도 한다. 좀 부정적 의미로는 '지배층'이라고도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도층의 지위에 맞는 도덕적 양심과 행동을 이르는 말로, 사회의 중요 덕목으로 자주 인용된다.

그렇다면 지도층만 도덕적 의무감이 중요하고 일반 국민의 도덕적 의무감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물론 그럴 리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 도덕적 의무감은 지위가 높든 낮든 다 중요하다. '사회는 도덕 체계다.'라는 말처럼, 사회가 존속하고 지속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법 때문이 아니라 도덕 때문이다. 한 사회 안에서 수적으로 얼마 안 되는 '지도층'의 도덕성만이 문제될 수는 없다. 화합하는 사회,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는 국민 전체의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왜 지도층만의 도덕적 의무감을 특히 중요시하는가?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 식 표현으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이다. 서구식 주장으로는 지도층이 '도덕적 지표(指標)'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식의 표현이든 서구식의 주장이든 이 두 생각이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서는 위가 맑아도 아래가 부정한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또한 도덕적 실천에서는 지도층이 꼭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완벽한 기준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어느 방법이 높은 가능성을 지니느냐, 어느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냐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식 표현이든 서구식 생각이든 두 생각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는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감이 일반 국민을 도덕 체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왜 우리 사회 지도층의 상당수는 '도덕적 상층'이라고 불리지 못하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 사회의 상층과 우리 사회의 상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선진국 사회의 상층은 우리 사회의 상층과 달리 '도덕적 상층'이라 불린다. 이들 사회의 '상층'은 재산과 권력 그리고 위신(威信)만 높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수준 또한 그들 국민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 점이 선진국 사회의 상층이 '존경받는 상층'이 되는 이유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의 상층은 돈과 힘과 높은 지위는 가지고 있어도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 사회의 상층이 '존경받는 상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존경은 고사하고 일부 지도층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혼돈(混沌)과 무질서, 계층적, 지역적 갈등의 원인을 지도층의 문제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회 지도층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 지도층의 지도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도덕적 긴장감과 도덕적 의무감이 떨어지는 사회 지도층의 행동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확고한 사회적 덕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37. 위 글의 논리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오블리주’란 무엇인가?
–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감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 ①
↓
○ 도덕적 의무감이 지도층에게만 중요한가?
– 아니다. 일반 국민의 도덕적 의무감도 중요하다. …… ②
↓
○ 그런데, 왜 지도층만의 도덕적 의무감을 중요시하는가?
– 역사적으로 지도층의 행위가 사회의 완벽한 기준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 ③
↓
○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모습은 어떠한가?
– 도덕성이 떨어져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 ④
↓
○ 따라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사회적 덕목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 ⑤

38. 위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점]

① 지도층과 지배층은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② 지도층의 지위에 합당한 도덕성을 갖출 때 ‘도덕적 상층’이라 불린다.
③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요소가 강조되어야 한다.
④ 도덕적 의무감이 떨어지는 지도층의 행위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다.
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정착된 사회는 일반 국민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39. 글쓴이의 생각을 비유적으로 정리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집안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집안의 어른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강사의 실력이 좋아야 한다.
③ 국가 경제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초일류 기업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
④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⑤ 국정을 무리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야 한다.

40. 위 글을 읽고 아래의 <자료>를 접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 료 >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사회 지도층을 믿지 않으며 지도층이 국민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이달 초 여론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2.1%가 '사회 지도층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는 답이 전체의 66.6%에 달했다. '지도층 인사가 병역, 납세 등 국민의 기본 의무를 얼마나 실천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실천하지 않았다.'란 답이 82.1%로 나타난 반면 '의무를 이행했다.'는 의견은 17.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책임감 부재'<22.1%>, '청렴성 부재'<13.7%>, '비공정성'<19.1%>, '맹목적 권위'<16.6%> 등이 지도층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편 같은 기간 정치·경제·언론·학술 등 각계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전체의 87%가 '지도층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해 일반 국민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보

① 사회 지도층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군.
②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도층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자료군.
③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도덕적 상층'이라 불리지 못하는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군.
④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감이 일반 국민의 도덕적 의무감보다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
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견해차를 확연히 볼 수 있는 자료군.

41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골대가 한성(漢城)에 침입하여 보니 국왕(國王)이 이미 피란(避亂)하고 대궐(大闕)에 없으므로 아우 용홀대에게 한성을 점령(占領)케 하고 스스로 기병(騎兵) 오천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추격하여 성중(城中)을 향해 총을 쏘매, 화살이 비오듯 했다.

상감이 이런 혼란(混亂)으로 어쩔 줄 모르고 [ⓐ]하고 있을 때, 공중에서 홀연(忽然)히 큰 소리가 들려왔다.

"상감께서는 항서(降書)를 써서 용골대에게 주소서. 용골대는 세자 대군 삼형제를 볼모로 잡아가고 난리는 일단 끝날 것입니다. 신첩(臣妾)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광주 유수 이시백의 처(妻)입니다. ㉠신첩이 한 번 나아가 칼을 들면 용골대의 머리와 호병(胡兵) 삼만을 풀 베듯 할 것이나 천의(天意)를 어기지 못함이니, 신첩의 죄를 사하소서."

용골대는 항서를 받은 후에 세자 대군과 왕대비전을 데리고 떠나갔다.

한편 계화는 박씨 집의 후원(後園)에 용홀대의 머리를 베어 박부인에게 드리니, 부인은 그놈의 머리를 높은 나뭇가지에 달아매어 두었다가 그놈의 형 용골대가 와서 보고 낙망(落望)케 하라고 일렀다. 그 후 용골대가 한성으로 들어와서 동대문으로 들어오다가 용홀대가 박씨의 시비(侍婢) 계화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여 벽력(霹靂)같은 호통을 치자, 박부인은 계화를 불러서 명(命)했다.

"네가 저놈을 죽이지는 말고 간담(肝膽)을 서늘케 해서 우리 도술(道術)의 솜씨를 보여라."

계화가 맞아 싸운 지 십여 합에 용골대는 계화의 무술 실력에 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으나 허세를 부리고 큰소리로 꾸짖으며 삼백 근 철퇴를 둘러메고 계화에게 달려들었다. 이때 계화가 거짓 패하여 달아나자 용골대는 그 뒤를 바로 쫓으며 호통을 쳤다.

"㉡이년, 네가 달아나면 안 잡힐 줄 아느냐?"

[A] 계화가 잡았던 칼을 공중에 휘저으며 진언(眞言)을 외우매, 모래와 돌이 날리고 사방에서 어두귀면(魚頭鬼面)의 병졸(兵卒)이 아우성을 치고, 에워싸 들어오고, 눈과 비가 크게 퍼부어서 순식간에 물이 한 길도 넘으니, 용골대 수족(手足)을 놀리지 못하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살려달라고 [ⓒ]했다.

"네가 그럴 뜻이라면 왕대비전하(王大妃殿下)를 이리로 모셔오라."

박부인이 급히 뜰에 내려 왕대비전을 맞아 통곡(慟哭)하며 불행(不幸)을 위로(慰勞)하고 계화에게 명하여 용골대를 석방(釋放)시키니, 계화가 박씨의 명을 받고 나와서 용골대에게 말하기를,

"㉢너를 여기서는 용서한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의주(義州)에서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당할 것이니, 의주에 도달하는 즉시로 의주 부윤 임경업 장군에게 배례(拜禮)하고 이 글을 보여 드려라. 그러면 임장군이 너를 용서하고 돌려보내리라."

용골대가 의주에 이르자 임경업이 비호(飛虎)같이 달려들며 벽력같은 소리로 용골대를 질타(叱咤)했다.

"이 [ⓓ]한 오랑캐 장수야. 어서 내 칼을 받아라!"

용골대는 황망(慌忙)히 말에서 내리며,

"㉣장군은 노기(怒氣)를 풀고 잠깐 이 글을 보시오."

하고 이시백 부인 박씨의 편지를 올렸다.

'이번 우리 조국의 국운(國運)이 불길(不吉)하여 이런 일을 당하였으나 하늘이 호국(胡國)과 조선(朝鮮) 두 나라가 종속 관계(從屬關係)가 되라고 정(定)하신 운수여서 용골대가 상감의 항서를 가지고 세자 대군 삼 형제 분을 모시고 귀국(歸國)하는 것이니, 장군은 분(憤)한 마음을 진정하시고 이 일행을 무사히 가게 하여 삼 년 후에 세자를 무사히 환국(還國)하시게 함이 상책(上策)입니다. 장군은 부디 이 말씀을 믿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감은 산성에서 항서와 함께 왕대비전하와 세자 대군은 호국에 보내시고 침식(寢食)이 불안하던 중 하루는 공중(空中)에서 선녀(仙女) 한 명이 내려왔다.

"신첩은 광주 유수 이시백의 처 박씨로소이다."

"㉤경(卿)의 지략(智略)을 매양(每樣) 탄복하던 중 이제 경의 모습을 보게 되니 과인(寡人)의 마음이 매우 기쁘오."

임금은 이시백의 호위(護衛)를 받으며 한성으로 향발(向發)하

여 환궁(還宮)하셨다.

– 지은이 모름, 「박씨전(朴氏傳)」 –

4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②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하고 있다.
③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④ 인물의 심리 묘사를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⑤ 인물 간의 대립적 구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 박씨의 자신감이 드러나 있다.
② ㉡ : 용골대의 허세(虛勢)가 드러나 있다.
③ ㉢ : 박씨의 너그러운 인품이 드러나 있다.
④ ㉣ : 용골대가 전의를 상실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 : 박씨에 대한 왕의 신뢰감이 드러나 있다.

43. <보기>는 [A]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특징이 잘 드러난 것은?

< 보 기 >

고전 소설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전기성(傳奇性)이다. 전기(傳奇)란 '대체로 귀신과 인연을 맺거나 용궁을 가거나 도술을 부리는 등과 같은 기괴하고 신기한 내용'으로, 괴이한 요소와 비현실적 상황을 제시하여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성격을 갖게 한다.

① 개성에 이생이란 사람이 낙타교(駱駝橋) 옆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열여덟 살로 얼굴이 말쑥할 뿐 아니라 재주가 비상하여 배움에 뜻을 두었고, 일찍이 국학(國學)에 다닐 때부터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글을 읽을 정도였다.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② 과연 그 달부터 태기가 있더니 10달 만에 일개 옥동자를 낳았는데, 생김새가 비범하여 실로 영웅호걸의 기상이었다. 공은 한편으로 기뻐하면서도 정실부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홍길동전(洪吉童傳)」
③ 그 고을 군수가 새로 부임할 적마다 으레 그 집에 몸소 나아가서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살림이 몹시 가난한 탓으로 해마다 관가에서 내는 환자(還子)를 타 먹으며 그럭저럭 여러 해를 지내고 보니, 어느덧 천 섬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 －「양반전(兩班傳)」
④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가서 심청의 나이 열다섯 살이 되었다. 얼굴이 빼어나고 효행이 뛰어나며 행동이 침착하고 하는 일이 비범하니 타고난 성품이지 가르쳐서 될 일인가? 여자 중의 군자요, 새 중의 봉황이었다. －「심청전(沈淸傳)」
⑤ 고려 때에 한생이 살고 있었는데, 젊어서부터 글을 잘 지어 조정에까지 알려지고 문사(文士)로 평판이 있었다. 하루는 한생이 거실에서 해가 저물 무렵에 편안히 앉아 있었는데, 홀연히 푸른 저고리를 입고 두건을 쓴 낭관(郎官) 두 사람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왔다.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44. 다음 중 [ⓐ] ~ [ⓓ] 어디에도 쓰일 수 없는 것은? [1점]
① 호가호위(狐假虎威)
② 애걸복걸(哀乞伏乞)
③ 노기충천(怒氣衝天)
④ 극악무도(極惡無道)
⑤ 망연실색(茫然失色)

45. 위 글을 읽고, <보기>를 바탕으로 토의를 하였다. 발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청(淸)나라가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그런데 식량난과 식수난이 겹치고 강화도마저 함락되자, 인조는 세자와 함께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 의식을 치렀다.

이 소설의 특이한 점은 여성이 주인공이며, 주인공인 박씨와 박씨의 시비인 계화를 초인간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로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남편인 이시백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인물로 표현하여 여성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① 가현 : 박씨와 계화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 그래서 난 이 작품이 영웅 소설적 성격이 있다고 봐.
② 나영 : <보기>의 내용과는 달리 호군(胡軍)을 물리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민중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
③ 다애 : 박씨가 그녀의 남편인 이시백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엿보여.
④ 라희 : 이 소설에서 '삼전도의 치욕'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숨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어.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
⑤ 마리 :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된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어.

46－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된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구 탄생 초기에는 100여 가지 원소만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몇 천만 년, 몇 억 년이 지나면서 지구의 대기를 비롯한 환경이 변화하였고, 조건이 바뀜에 따라 원소들은 서로 반응을 일으켰다. 이러한 화학 반응의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이 생겨났으며, 생명체의 진화도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 과정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물질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묽은 황산 용액에 한 조각의 아연을 넣어 보면 아연이 녹으면서, 아연 표면에서 많은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산(H_2SO_4)과 아연(Zn)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황산아연($ZnSO_4$)이 생성되며, 이때 수소(H_2)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모든 화학 반응이 위의 예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밀폐된 유리 용기 속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각각 투입하고 상온에서 일정 시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리 용기에는 한 방울의 물도 생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소와 산소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반응은 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대단히 느릴 뿐이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용기 바닥에 물이 고이려면 수천 년이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

동일한 구성 성분 사이의 화합도 조건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 반응을 확인할 수 없었던 위의 수소와 산소 기체를 섞은 용기에 열을 가하면, 곧 용기의 벽이 흐려지면서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550℃의 높은 열을 가하면 용기가 산산조각이 날 만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왜냐하면 높은 온도가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이는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A] 수소와 산소는 H_2와 O_2의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수소와 산소가 화합해서 물 분자가 되려면 이 두 분자는 충돌해야 하는데, 충돌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 분자가 생기는 확률은 높아진다. 또한 반응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원자로 분해되어야 한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각각의 분자가 산소 원자끼리 그리고 수소 원자끼리의 결합력이 약해져야 한다. 높은 온도는 분자 간의 충돌 횟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분자를 강하게 진동시켜 분자의 결합력을 약하게 한다. 그리하여 수소와 산소는 이전까지 결합하고 있던 자신과 동일한 원자와 떨어져,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물(H_2O)이라는 새로운 화합물이 되는 것이다.

만일 온도를 높여주지 않아도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충돌한 모든 분자들이 빠른 속도로 화학 반응을 한다면 지구상에 금속은 산화되어 버릴 것이고, 복잡한 유기물은 간단하고 안정한 화합물로 분해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생명이 없는 세계,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인데, 보통의 온도에서 대부분의 분자는 활성화 에너지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46. 위 글과 <보기>를 읽고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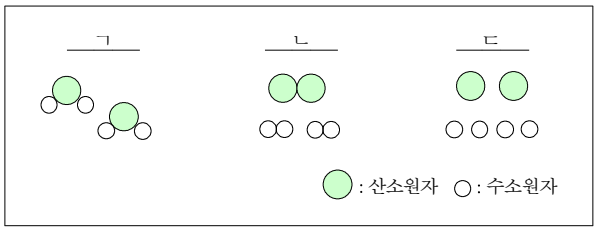
플라스크 속에 염소와 수소, 두 기체를 넣고 고무 마개로 막은 후 혼합해 보면 상온에서 천천히 반응한다. 이 플라스크 옆에서 마그네슘 리본에 불을 붙여 보면 플라스크 속에서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난다.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연쇄 반응이란, 한번 반응이 시작되면 반응에 의해 생겨난 에너지로 주변의 분자가 계속 활성화되어 잇달아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위 실험에서 빛은 염소 분자를 원자로 분해하고, 분해된 염소 원자는 수소 분자를 분해하여 수소 원자로 만들고, 다시 수소 원자는 또 다른 염소 분자를 분해하는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①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화된 분자가 증가하여 연쇄 반응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거야.
② 상온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연쇄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해.
③ 활성화된 분자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연쇄 반응도 증가하여 지구상에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어.
④ 지구에 오늘날과 같은 많은 화합물이 생성된 것은 온도 상승 외에 빛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도 있었겠어.
⑤ 100가지 정도의 원소 상태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에는 어떤 환경적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거야.

47. [㉮]에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생석회(산화칼슘)에 물을 부으면, 소석회(수산화칼슘)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다량의 열이 발생한다.
② 나무를 태우면 불꽃과 함께 열이 발생한다. 그리고 나무는 재로 변한다. 연소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③ 상처에 과산화수소수를 바르면 많은 거품이 발생한다. 이것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산소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④ 황 덩어리에 불을 붙이면, 황은 파란 불꽃을 내며 타기 시작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황이 산소와 화합해서 이산화황이 된 것이다.
⑤ 물을 유리 용기에 가득 넣고 냉각시키면, 물은 얼음으로 변하고 유리 용기는 깨진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팽창한 것이다.

48. [A]를 바탕으로 물 분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이다.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점]



① ㄱ – ㄴ – ㄷ
② ㄱ – ㄷ – ㄴ
③ ㄴ – ㄱ – ㄷ
④ ㄴ – ㄷ – ㄱ
⑤ ㄷ – ㄴ – ㄱ

49. 위 글에 드러나는 '온도'와 '화학 반응'의 관계가 적용된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두 손바닥을 세게 문지르니 열이 났다.
② 우유를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빨리 상했다.
③ 감을 따뜻한 곳에 오래 두었더니 식초가 되었다.
④ 생선을 얼음 위에 올려놓았더니 신선도가 유지되었다.

⑤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했더니 오래도록 상하지 않았다.

50－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세계 각국은 다가올 우주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선 개발이 필수적이나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우주선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제한된 공간에서 그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없어야 한다는 어려움까지 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해결한 것이 연료전지다. 연료전지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어 꿈의 전지라 불리고 있다.

(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발전하는 방식으로 얻는다. 이러한 방식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꾼 다음 기계적 에너지로, 이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A]연료전지는 천연가스나 메탄올 등의 연료에서 얻어낸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직접 얻는 방식이다. 즉, 중간 과정 없이 화학에너지에서 바로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좋다. 또한 생성물이 물뿐에 없어 무공해이고, 기계적 에너지 변환 단계가 생략되어 소음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환경 친화적이다.

(다) 현재의 자동차 엔진은 가솔린, 디젤, LPG 등의 연료를 고온, 고압 상태에서 연소·폭발시켜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다시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차를 움직이는 내연기관이다. 소음과 공해는 바로 이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에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연료로 메탄올을 사용할 경우, 시동을 걸면 연료탱크에 있는 메탄올이 연료변환기를 거치면서 수소를 발생시키고, 이 ㉠ 수소가 연료전지로 들어간다. 동시에 공기압축기로부터 연료전지로 공기가 유입된다. 이 과정에서 생긴 물은 물탱크로 들어간다. 연료전지에서 발생된 전기는 인버터*에 의해 변환되어 모터를 움직여서 바퀴를 돌리기 때문에 소음과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만약에 연료전지발전소를 만든다면, 규모가 크고 공해로 인해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던 일반적인 발전소와 달리 도심에 설치할 수 있다. 발전소가 도심에 설치되면 송·배전 설비를 절약하고 전기가 필요한 곳에 바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통상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과 같이 규모가 큰 발전소는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그 규모를 쉽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이 낮다. 하지만 연료전지발전소는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그 규모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 또한 설비의 규모에 관계없이 효율이 비슷하므로 연료전지를 소형·대형 발전소에 다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쪽에서는 소규모 설비로 건설할 수 있어 적은 투자비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마) 꿈의 전지라고 불리는 연료전지가 실용화된다면 일상생활에서 군사적인 목적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가능성이 무한하다. 앞으로 우리는 출퇴근길에 연료전지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움직이는 전철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가정에 설치된 가정용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생활할 것이다. 또 우리의 바다는 연료전지 잠수함에 의해 수호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이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연료전지 시대가 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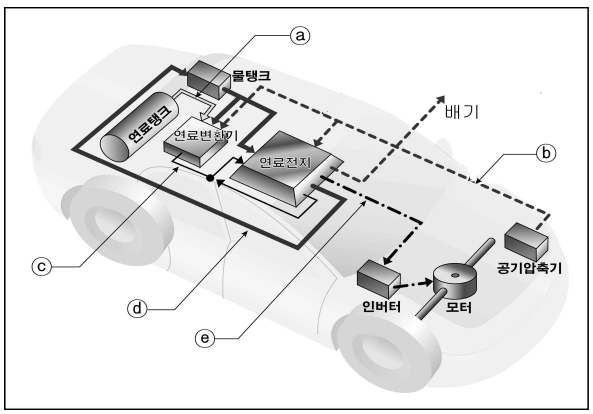
* :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바꾸는 장치

50.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가): 연료전지의 탄생 배경
② (나): 연료전지의 문제점과 해결 과정
③ (다): 연료전지 자동차의 작동 원리와 장점
④ (라): 연료전지발전소의 이점
⑤ (마): 연료전지 시대에 대한 전망

5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천연가스 · 석유 등을 화석연료라고 한다.
② 현재의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있다.
③ 연료전지는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④ 연료전지는 우주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우연히 개발되었다.
⑤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현재의 발전 방식은 소음이 발생한다.

52. [A]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철수는 머리가 아파 공원을 산책했더니 머리가 맑아졌다.
② ○○공장은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여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③ □□회사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회사의 이익을 향상시켰다.
④ △△경찰서는 도둑이 잡히지 않자 포상금을 걸어 도둑을 신속하게 검거하였다.
⑤ 영희는 성적이 떨어지자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하였다.

53. 그림은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구성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다. ㉠에 해당하는 부분은?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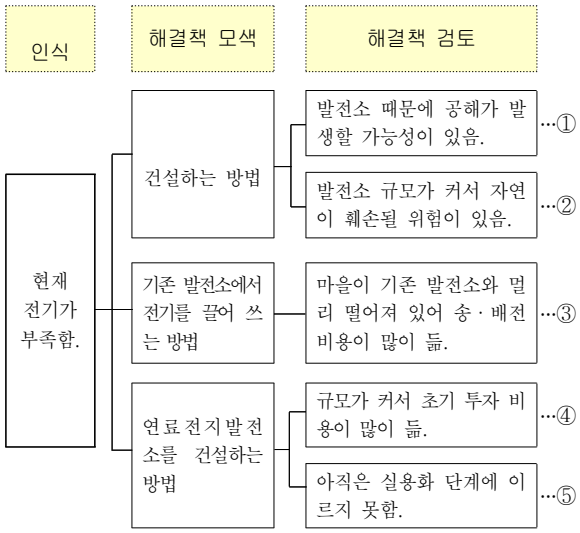
54.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1>을 접하고, <보기2>와 같이 해결책을 검토해 보았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1 >

경상도 ○○군에 위치한 □□산 국립공원에 갔을 때의 일이다. 국립공원 안 깊은 산속에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사용하는 마을이 있었다. 그러나 태양열을 이용해 얻은 전기량은 형광등을 켜기에도 부족해서 마을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다. 9가구로 구성된 이 마을 주민 15명에게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이하 생략)

– □□산 국립공원 △△마을을 다녀와서

< 보기2 >



55－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A]
타박 타박 타박녀야
너 어디로 울며 가니?
영영 가버린 어머니를 찾아
슬피 울며 타박타박 걸어가는 타박녀

내 나이 어렸을 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혹은 코콜* 앞에 앉아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말하면, 달 속의 계수나무와 옥토끼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견우·직녀 이야기, 천태산 마고할미 이야기, 구미호 이야기, 장사 이야기, 그리고 유충렬전, 조웅전, 장화홍련전, 심청전 등 고담책 이야기며, 이밖에도 이루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마는 그 가운데서 슬프기로는 타박녀 이야기가 으뜸이었다. 어디선가, 타박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 귓가에 들리는 듯하면, 타박타박 걸어가는 타박녀의 뒷모습이 눈앞에 서언하여, 나는 이 슬픈 환상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도 어느 사이에 어머니를 잃은 타박녀가 되었구나. 더욱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눈물도 동심도 다 잃어버린 세상에서 ㉡가엾은 고아가 되고 말았구나!

2.

내 나이 어렸을 때 우리들이 타관에 나와 단칸방 셋방살이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어떤 날 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내가 이 다암에 커서 무엇이 되기를 바라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소 과대망상증을 가진 나는 자못 자신만만하다는 듯이 어머니의 소원을 물었다. 순간 ㉢어머니의 눈은 빛나셨다. 내 신념에 움직이신 듯. 그리고 은근한 어조로,

"강릉 군수가 되어 주렴." 이것은 어머니의 향수.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시리라. 그러나 비단옷이 아니고는 돌아가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슬픈 결심이기도 하다. 아아, 어머니는 드디어 고향 길을 못 밟으시고 저 세상으로 가신 지 오래니 내 이제 강릉 군수를 한들 무엇하리.

– 김동명, 「어머니」 –

* : 고콜. 난방과 조명 기능을 하는 장치

(나) 쟁반 위 붉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가 아니어도 품엄 직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세 이를 슬퍼하노라

– 박인로 –

(다)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낫같이 들 리도 없어라
[B]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마는
위 덩더둥셩
㉤어머님같이 사랑하실 리 없어라
아아 임아
어머님같이 사랑하실 리 없어라

– 지은이 모름, 「사모곡」 –

5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가)의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며 서술하고 있다.
② (나)에는 그리움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③ (다)는 생활 주변의 소재를 통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 (나)에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⑤ (가)~(다)는 현실 생활에서 지켜야 할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

56. (가)의 첫머리에 [A]를 배치한 의도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ㄱ.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암시한다.
ㄷ. 글쓴이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ㄹ.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7. ㉠~㉤ 중, (나)의 '슬퍼하노라'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58. 발상 및 표현 면에서 [B]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①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 많아라
좋고도 그칠 적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②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③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淸風) 한 간 맡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④ 사랑이 그 어떻더냐 둥글더냐 모나더냐
길더냐 짧더냐 밟고 남아 재겠더냐
구태여 긴 줄은 모르되 끝 간 데를 몰라라

⑤ 묏버들 골라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 나거든 나처럼 여기소서

59. <보기>의 밑줄 친 '설렁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 보 기 >

아들이 아버지 없는 어려운 살림에서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는 날. "뭘 먹을래?"라는 물음에 아들은 "설렁탕."이라고 대답한다. '아들이 엄마의 지갑 사정을 생각해 주는 걸까? 왜 하필 설렁탕을……. 그렇구나, 너도 그렇게나 설렁탕을 좋아하던 아버지에게 네 졸업을 자랑하고 싶었구나.' 식탁을 마주하고 우리는 둘 다 쉽게 수저를 들지 못했다.

① 코콜 ② 단칸방 ③ 비단옷 ④ 붉은 감 ⑤ 낫

60. <보기>의 '내재적 관점'에 따라 (다)를 감상한 것은?

< 보 기 >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작품 안에서 찾는 방법과 작품 밖에서 찾는 방법이다. 전자를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 후자를 외재적 관점이라고 한다.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 자체에 나타난 어휘, 표현법 등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해야 한다. 이와 달리 외재적 관점은 작품과 관련이 있는 작가의 삶, 시대적 배경, 독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① 아버지를 '호미'에, 어머니를 '낫'에 비유한 것이 참신해 보이는군.
② 예나 지금이나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③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후대의 많은 문학 작품에 영향을 주었을 거야.
④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요즘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
⑤ '호미'나 '낫'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작가는 농촌 생활을 경험한 사람일거야.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